

신신근 목사님

출처: 한국그리스도의교회 이야기(조동호), 그리스도의교회 연구소(2018) pp79-82

(1) 송헌기독교교회(인천 제1교회)와 성서훈련원



인천 송헌기독교교회 담임 신신근 목사(1936년)

송헌기독교교회는 인천 제1 교회로서 인천에 세워진 다른 세 교회들의 모교회였다. 설립자 정삼선 집사가 전기 사업자였기 때문이었는지 이 교회의 예배당에는 1930년 대 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 교회에 정식으로 담임 목사가 파송된 것은 신신근 이 처음이었다. <도쿄 그리스도인>지에 신신근이 인천 제1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사진과 함께 소개된 것은 1936년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1934-35년에 촬영된 사진들에서 신신근 목사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다. 송헌성결교회의 약력에 신신근 목사가 1932년 12월에 제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이것은 정확한 내용이 아닌 듯이 여겨진다. 1936년에 신신근 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송헌기독교교회와 주변에 세워진 선교기지(포교소) 들은 성낙소 목사에게 이어 이인범 목사의

감독을 받으며 김영배와 정삼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김영배와 정삼선은 모교회인 송헌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각각 선교기지를 맡아 관리하고 발전시키고 있었다.

<도쿄 그리스도인>은 송헌기독교교회가 땅을 매입하고 1934년초부터 건축에 들어갔으며, 비용의 대부분을 교회가 감당함으로써 요츠야선교부는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었다고 후원자들에게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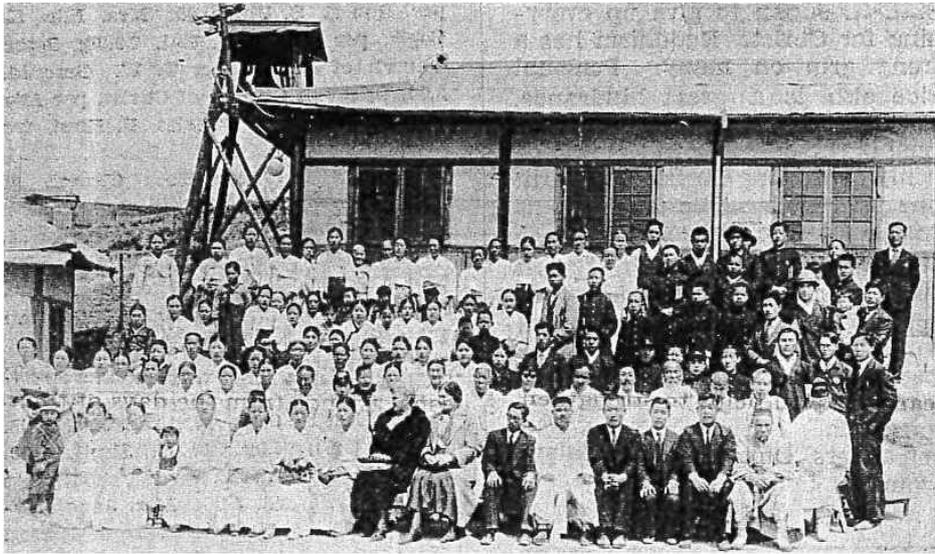
인천 송헌기독교교회(1934년 5월 6일)

앞줄 좌측에서 세 번째가 김영배 집사, 네 번째 겸정목사님이 설립자 정삼선 집사(전도자)이다. 정삼선 집사는 서울기독교교회 출신이며, 1931년에 제주도에 내려와 전기사업을 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조직하였다. 그 때문이었는지 인천송헌기독교교회 예배당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다.



캐닝햄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헛치 선교사와 함께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회(1936년 3월)

교회와 선교기지(포교소)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더는 목회자를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신신근 목사가 부임 한 1936년에 제1교회(송현동)에 교인이 100여명, 제2교회(유동)에 30여명, 제3교회(금곡동)에 20여명<1936년 12월호>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은 신신근 목사가 비록 체구는 왜 소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소개하였다.



인천 송현기독교회(1937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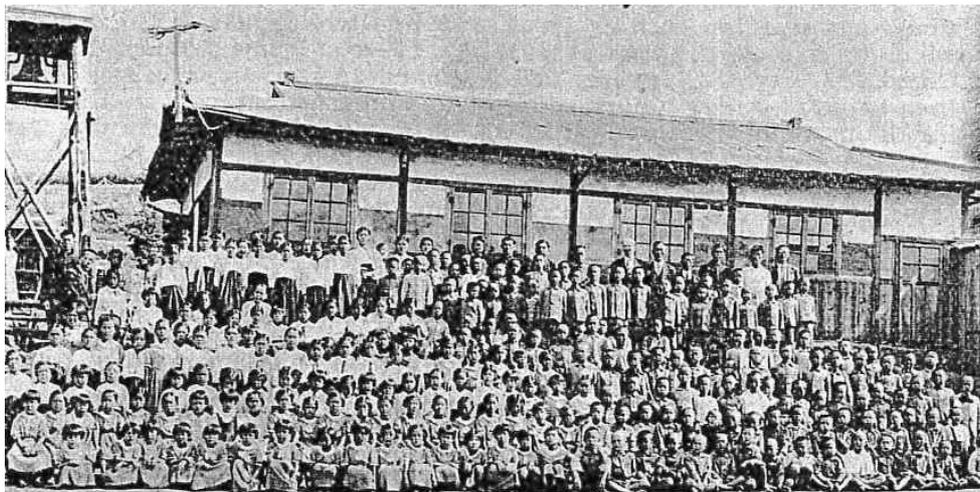
종당이 새로 세워졌다. 슈멜 양 열자리의 외소한 사람이 담임목사 신신근이다.

신신근 목사가 부임한 1936년에 송현기독교회(인천 제1교회)에 성서훈련원이 개설되어 주 4회 야간에 한 시간씩 성서교육이 실시되었다. 이 때 학생이 16명이었고, 김영배 전도자, 신신근 목사, 박사은 집사가 가르쳤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인천 송현기독교회와 평북 구성군 방현기독교회에 유치원이 세워져있었다. 송현기독교회 유치원에 등록 어린이가 170명이나 되었다.



인천(송현)기독교회 신학교 창립기념(1936년 10월 5일)
앞줄 중앙이 토마스 헛치, 헛치 우측이 김영배, 헛치 좌측부터 이인범(어린아이), 담임목사 신신근

194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법에 따라 한국선교를 지속 할 수 없었던 요츠야선교부는 임대건물에 세들어 있는 8개 교회들에게 1941년치 임대료를 한 몫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신신근 목사에게도 같은 액수를 보냈다. 송현기독교회는 이때까 지도 목사 사택임대료를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송현기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1939년, 담임목사 신신근)

송현성결교회의 약력에 따르면, 신신근 목사는 1946년 12월 2일에 소천하였으며, 그로부터 8일만인 1946년 12월 10일에 송현기독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재건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요츠야선교부에서 일한 한국인 사역자들의 상당수는 경성성서학원 곧 성결교 출신들이었고, 요츠야선교부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후임자가 성결교 출신으로 결정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결교단은 일제때 폐쇄되었다가 해방 후 재건되었는데, 송현기독교회가 그 때 성결교회로 재건된 것으로 여겨진다. 일제의 탄압과 태평양전쟁으로 인해서 요츠야 선교부의 후원이 끊기지 불과 5년 만에 생긴 가슴 아픈 사건이다.